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7,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과 그레이트 백보좌 심판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과 큰 백보좌 심판 27회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문제로 돌아가서, 저는 천년왕국을 해석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 원칙을 간략하게 논의했습니다.

또 다른 원칙은 우리가 여전히 교회 역사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것이 본문과 어떻게 씨름하는지, 그리고 그 측면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빠르게 요약하기
위해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천년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언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다른 모든 숫자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1000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길이의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 번째 20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20장은 여전히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셋째,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엄격한 연대순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내에서 20장이 하는 역할, 즉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해석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일차적 목적과 요점이 아니라 새 창조이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특히 4절부터 6절까지와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을 읽는 방식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관한 언급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성도들의 옹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20장이 4절 끝 부분에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의 주요 기능은 사탄과 짐승들의 생애를 반전시키고 대조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탄과 두 짐승은 특히 지금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일종의 선봉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사탄은 통치하고 통치하는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땅은 그의 왕국이고 그의 통치는 이제 1세기 요한에게 로마제국을 통해 표현되며, 그의 통치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분의 판결은 그들이 그분의 왕국에 저항하고 협력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역전된 행위로, 짐승이 통치하던 시대에 참이었던 것과 정반대로, 이제는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살아나느니라.

통치하는 사탄과 달리 성도들은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주로 이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생명과 통치는 그들의 의로움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년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상당히 긴 특정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방식,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여 옹호될 것이며, 통치할 것입니다. 그들은 통치하던 짐승의 손에서 그들이 대우받았던 것과 정반대로 살아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천년기간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기간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의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은 사탄의 심판의 상황에서 그들의 옹호로서 통치합니다.

이제 그들이 통치하고 있으며 그것은 천년으로 상징됩니다. 또는 천년은 단순히 천년이라는 완전함과 충만함의 수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천년으로 상징된 성도들의 완전한 입증을 봅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성도들의 통치를 언급하는 다른 시간적 참고 사항을 고려하여 읽어야 할 것입니다.

즉, 왜 천년을 사용하셨는가? 아마도 사탄의 통치와 그의 박해와 폭력 활동,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기간과 대조를 이루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열흘이라는 고난의 기간을 보았습니다. 이 기간은 아마도 다니엘에게서 따온 상징적인 기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용의 활동 기간을 삼년 반 또는 때와 반 때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42개월 1260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제한된 기간, 사탄이 통치하는 제한된 기간과 성도들이 통치하는 기간인 천년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요점은 문자 그대로의 기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도의 통치가 널리 퍼진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기간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천년은 사탄과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도록 허락된 삼년 반, 사십오개월, 일천이백육십일과 정반대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숫자의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고 완전하게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미하거나 더 작은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사탄의 통치와 그의 박해 활동이 이제 비교하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도들은 완전히 입증되었으며 그것은 모두 천년 통치로 상징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짐승의 손에서 단 10일, 3년 반 동안 겪은 고난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1000년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보상은 그들이 짐승의 손에서 겪어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도 적어도 내 생각에는 천년왕국에 대해 이보다 더 많이 읽어서는 안 되며, 천년왕국에 관한 다른 내용을 읽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과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본 유일한 역할, 그것이 수행하는 유일한 역할, 또는 적어도 천년 통치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성도들의 승리와 옹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도들의 옹호에 대한 언급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15장에서 그들이 바닷가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시온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자는 성도들의 의로움을 다른 시각으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사탄의 손에 대접을 받았으나 이제는 사탄이 통치하고 생명을 주는 대신 성도들이 통치하는 방식과 대조하여 성도들의 의로움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탄이 통치했던 기간과 상징적으로 1000년이 그들 자신의 통치를 가리키는 기간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점에서 보면, 제가 말한 20장의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20장의 주요 기능은 이것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자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 특히 1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들을 성도로 고소하는 자로 여겨졌다는 생각을 우리가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또한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탄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이제 사탄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심판 중 일부는 그가 비난한 사람들과 그가 해를 입히고 박해한 사람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사탄의 심판의 맥락에서 성도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그가 성도들의 피에 대한 죄가 있다는

사탄의 심판의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유죄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일부는 또한 그분이 확대하고 해를 입히고 죽인 사람들이 입증되고 그들의 증언이 타당하고 옳았으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5절은 6절까지 계속됩니다. 5절은 천년 후에 살아나는 남은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문제는 1,000년 후에 살아난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부활인가? 즉, 이것은 두 번째 부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요한이 4절에서 말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4절은 성도들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은 또 다른 부활, 또 다른 부활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후에 정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6절, 6절에 보면 실제로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이는 살아난다는 뜻으로 또 다른 부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 즉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5절은 나머지 죽은 자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1,000년 후에는 더 많이 제기될 것이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4절에 보면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관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흥미롭게도 여러분은 첫째 부활, 즉 4절에 성도들이 살아나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는 둘째 부활과 첫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다들 그렇게 따르나요? 첫째 부활은 4절에 있고, 이제 6절에서 요한은 둘째 사망을 호소합니다. 첫째 부활은 어딘가에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먼저 두 번 말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언급은 첫 번째 사망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John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첫 번째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후에 오는 둘째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 중 어느 것도 John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방식은 이것이다. 첫째 부활은 분명히 4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천년으로 상징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5절의 첫 부분인 5절일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11절과 15절이 둘째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모두, 특히 12절에 주목하십시오.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고 책들이 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행해진 일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저희 죽은 자들을 내어 주느니라. 제 생각엔 그게 두 번째 부활인 것 같아요.

John이 그런 식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 후, 곧 천년 후에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에 대한 언급은 당신의 두 번째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부터 15절까지가 둘째 부활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4절). 성도들이 살아나서 통치하는 것은 천년으로 상징됩니다. 둘째 부활은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여기서 마지막 심판 행위로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이 둘째 사망을 언급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둘째 사망이 20장 14절과 15절에서 명확히 밝혀진 것을 봅니다. 이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서 그들이 살아나 심판을 받을 때(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불못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거기에는 19장에서 이미 짐승이 던져졌고, 용도 던져진 곳이 있으며, 20장에서는 그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리스도께 신실한 자들과 짐승에게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요한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죽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있습니까? 나는 요한이 첫 번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 곧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증인의 일부로 경험한 참수와 살육이라고 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사망, 즉 사탄과 짐승의 손에 육체적인 죽음과 해를 입지만,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부활하여 입증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첫째 사망, 즉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만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 같으니라.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의 주요 주제가 주로 사탄의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심판과 함께 지금 사탄에게 주어진 심판도 또한 성도들에 대한 그의 대우는 그릇되고 부당했으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옹호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부터 6절까지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하고 살아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천년은 단순히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천년은 그들의 입증과 보상,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이제 사탄이 그들을 대했던 방식과 대조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20장에서 사탄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해를 끼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은 사탄의 심판에서 거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이 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에 있을 것인지, 어떻게 밀레니엄 시대와 기타 등등에 거주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묻는 다른 모든 질문은 아마도 존 자신이 우주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질문은 아마도

불필요할 것입니다. 20장의 천년왕국. 우리가 주목한 또 다른 점은 계시록의 주요 목표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20장은 단순히 최종장, 장대한 최종장, 책의 절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주요 목표는 곧 다루게 될 21장과 22장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우리는 사탄의 마지막 심판을 읽습니다. 여기서 그는 실제로 무저갱에서 풀려나고 이 시점에서 그는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나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의 진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의 성도들의 진영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이제 사탄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의 백성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19장과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실제로 아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사탄이 단순히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규모 접전을 보지 못하고 양쪽에 사람이 있고 양측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불이 하늘에서 나와서 사탄과 그의 모든 원수를 삼키므로 실제로 싸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싸움은 19장, 17절부터 21절의 싸움, 17장에서도 사탄과 열왕국이 어린양과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그들을 패배시켰고 요한계시록 16장의 인장 번호 6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동일한 종말의 전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전쟁이 주로 심판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주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 장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이미 20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전투가 19장 끝의 전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뒤에 동일한 구약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 전투를 묘사하기 위한 모델로 같은 본문인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지막 전쟁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은 19장에서 새와 짐승을 불러 모아 시체를 배불리 먹을 준비를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투의 결과. 이제 우리는 John이 동일한 언어나 동일한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한다는 내용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여, 이것은 19장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을 멸하시느니라. 이제 그들은 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전투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John이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거나 적들이 불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에스겔과 에스겔의 개념을 바탕으로 에스겔을 암시하면서 적들이 불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한 곡과 마곡에 대한 언급에 유의하십시오. 에스겔서 38장 1절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인자야 나에게 임하니 곧 인자 에스겔에게 이르노니 너는 마곡 땅의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라.

따라서 요한이 곡과 마곡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가 에스겔 38장을 언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곡과 마곡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온갖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러시아나 다른 나라와 같은 현대 국가와 동일시하려는 온갖 시도가 있었습니다. 곡과 마곡과 함께 체조를 하고 그것들을 현대의 현상과 연관시켜 보면 곡과 마곡이 현대 국가에 대해 예언하는 요한처럼 취급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 자신이 8절에서 곡과 마곡이 누구인지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을 미혹하려 나갈 것입니다. 네 곳은 온 땅을 상징합니다. 나는 요한이 에스겔 38장의 전투를 암시하면서 곡과 마곡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한은 곡과 마곡을 온 땅의 모든 나라를 위한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반대하는 온 땅이며,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그들의 시도 뒤에 사탄이 있는 마지막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실, 그 숫자는 8절에 나오는 해변의 모래와 같으며, 이것은 단지 두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암시입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입니다. 에스겔 38장을 암시하면서 사탄이 지금 속이고 있는 온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전투를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처럼 그들은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영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 자신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비록 이 본문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이제 성도들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제 전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도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더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20장 4절과 6절의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위협도 없고, 그들의 주장이 뒤집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시도, 즉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게 하려는 그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우리가 19장에서 본 것과 같은 운명을 겪을 뿐입니다. 존재하거나 두 짐승이 19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별도의 전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요한이 12장과 13장에서 소개된 것과 반대되는 순서로 부정한 삼위일체인 사탄과 두 짐승을 설명하는 것이 문학적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단지 문학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엄격한 연대순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같은 전투입니다.

사탄에 대한 개념과 19장에 보면 이곳 사탄에게 군대를 모은 것은 두 짐승입니다. 그러나 16장에서 군대를 모은 것은 짐승과 사탄이었으며, 개구리가 나온 세 사람 모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종말의 전투를 보는 다른 관점이나 다른 방식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짐승들과 관련된 마지막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마지막 전쟁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19장처럼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 그대로의 전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9장과 같이 이것은 주로 19장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탄이 심판을 받는 심판 장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10절은 20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마귀는 그들을 미혹하여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대한 분명한 암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했듯이 20장의 주요 요점인 20장의 사탄 심판의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가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옮겨져 심판을 받고 땅의 모든 나라와 왕들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제 우리에게서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최후의 심판 장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이 전투 장면에서 7절부터 시작하여 하나와 셋으로 다시 연결되는 방식으로 사탄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장면을 모두 연결하는 숫자 1,000에 대한 언급 외에도 실제로 4에서 6까지 제거할 수 있고, 1에서 3까지 자연스럽게 7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부터 셋까지,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는 그가 자유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7절에서 천년이 지나고 이제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것을 엄격한 연대순으로 읽으려고 한다면,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천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즉,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천년 후의 언어인 일시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고 천년 동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대기적 연속에 관한 한 이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었다가 풀려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여 군대를 집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언어, 사탄을 풀어주기 위해 사탄을 묶는 언어는 이사야서 24장과 같은 구약의 책과 에녹서 1장과 같은 묵시적인 텍스트와 에녹서 2장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는 신약의 텍스트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서 2장과 유다서 6장.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그 후에 그는 잠시 동안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묵시적인 주제에 비추어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사탄이 자유로워져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서는 천년이 차면 사탄이 풀려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전서와 구약성경의 본문, 영을 옥에 가두는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들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감옥에 풀려날 때 이것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이야기의 일부로 또 다른 특징을 추가합니다. 사탄은 10절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무저갱에 갇혀 심판을 기다리며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사탄은 나라들을 속이고 마지막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지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판결, 곧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판결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복.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에 맞서 무력합니다. 대신, 사탄은 마지막 전쟁에서 두 짐승처럼 다시 한 번 패배하고 패배하며 구약과 다른 묵시적 텍스트에 나오는 이러한 개념을 암시하고 따라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장 10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모든 사탄 곧 두 짐승과 사탄이 다 멸절되고 심판을 받고 땅의 모든 왕과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마지막 심판인데, 이것이 이른바 큰 백보좌 심판 장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둘째 부활이기도 합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4절부터 6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은 둘째 부활이니 살아난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생각에는 1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것은 둘째 부활 곧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니라. 내 생각에는 이것은 믿지 않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들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심판은 그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고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특히 목이 잘린 성도들이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서 11절부터 15절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계시록 15장을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보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단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믿지 아니하는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서 그 짐승들과 두 짐승과 용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즉, 아마도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연대순으로 다른 사건들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추가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더 나은 묘사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의 모든 내용이 끝난 후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인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요점은 20대가 끝날 무렵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 두 짐승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 용인 사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 모든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땅의 모든 왕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심판으로 형벌을 받으니 20장 말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악이 제거되었습니다.

사악한 사탄의 삼위일체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 짐승을 따르고 그의 형상에 경배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나지 않는 일련의 심판 장면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반드시 연대순으로 따르되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묘사하면 이제 21장과 22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창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그 부분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크고 흰 보좌는 아마도 어떤 다른 보좌나 분리된 보좌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크고 흰 보좌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크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니라 제 생각에는 4장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4장과 같은 보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4장에는 4장에 분명한 심판 모티브가 있는데,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과 관련하여 우레와 번개가 우렁차게 울립니다.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그것을 판단 모티브로 보았습니다. 이제 4장에 나타난 보좌,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는 아마도 4장에 나온 보좌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을 모두 발견하는데, 나는 이것이 아마도 불신자들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심판은 4절과 6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심판에 들어가느니라. 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책에 대한 언급, 책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능하며, 다른 묵시적 텍스트에서 이것을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작품 기록에 대한 은유일 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작품은 판단의 근거로 기능한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책들은 또 다른 구약의 본문인 다니엘 7장을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여러 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니엘 7장과 10절에서는 한 책을 언급합니다. 7절 10절에 보면 불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데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를 따르며 수만만이 그 앞에 섰는 것을 묘사한 것이니라. 법정이 자리를 잡았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다니엘 7장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적절한 하위 텍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안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다니엘 7장처럼 일종의 법정 장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은 다니엘 7장에서 열립니다. 나중에, 다니엘 12장에는 그 때에 네 백성을 보호하는 큰 군왕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민족들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네 백성 곧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는 다니엘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영원한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묘사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4절부터 6절까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 곧 책에 나오는 멸시와 형벌을 위해 살아나는 자들, 이것이 11절부터 15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들에는 그들의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나는 이것이 일차적으로 일이 1위인 사람들, 아마도 성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들이 짐승을 따른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제국의 우상숭배적이고 무신론적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강조하자면, 그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장 5절에서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생명책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13절의 모든 악의 완전한 제거, 모든 악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라는 개념을 덧붙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놓았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 흥미 롭군요. 죽음은 죽음을 포기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죽음은 사람들에게 대한 권위를 갖는 권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곳, 심지어 묵시적인 문학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개념을 봅니다. 아마도 바다와 하데스도 일종의 죽은 자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심판의 맥락에서 죽은 자들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제가 말했듯이 이 최후 심판 장면에서 심판의 최종성과 모든 악의 완전한 제거를 강조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1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때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요한계시록 4장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도망하더라. 즉, 그들도 심판을 받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 곳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과 땅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심판을 받고 도망하느니라. 왜 이렇게이다? 왜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소개하는 21장에 이르면 이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1장의 무에서 나온 새로운 창조로 이 창조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살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과 하늘도 제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 땅과 하늘이 짐승들과 사탄 자신의 지배를 받아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사탄과 짐승이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지배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심판 장면에서 요한은 땅과 하늘도 함께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마도 지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념적으로 지구를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 표현하려는 의미입니다. 땅은 사탄과 짐승에 의해 황폐화되고 파괴되고 해를 입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를 입은 곳이다. 로마와 불경건한 제국들이 다스리던 땅은 이제 제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리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이고 이념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상을 짐승과 사탄이 통치하고 해를 끼친 곳으로 보는 전체적인 그림 때문에 바다와 땅과 하늘도 이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들은 지구의 파괴자로 묘사됩니다. 이 부분의 또 다른 설명은 불못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고,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못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문자 그대로의 가마솥, 사람과 짐승과 용과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던져지는 불꽃의 광대한 가마솥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상은 사탄 자신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못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던져지는 불을 뿜어내는 문자 그대로의 호수나 가마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단순히 심판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제거되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되어 영원히 사탄과 짐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John은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1장과 2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못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새 창조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심판을 상징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종합적인 심판 장면에서 모든 악이 제거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또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20장 끝까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인 심판 장면에서는 모든 악이 제거되고 심판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두 짐승은 제거되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의 왕들이 제거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나라가 제거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용인 사탄 자신도 제거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은 모두 부활하고 제거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조 자체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곳, 그가 해를 끼치는 곳, 그와 짐승이 황폐하게 만든 곳 등 모든 것이 포괄적인 심판 장면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일부로서, 21장과 22장을 예상하는 심판 장면의 일부로서, 믿지 않는 인류와 짐승과 사탄에 대한 심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고 해를 입힌 방식이 옳바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일부는 천년 통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증을 의미하며, 부활하여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은 그들의 입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도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될 21장과 22장만을 예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모든 악, 모든 악한 것, 모든 악한 곳, 모든 악한 사람이 이제 포괄적인 장면, 포괄적인 심판 행위에서 제거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창조적 행위, 즉 새로운 창조 행위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20장 이후에도 남은 것은 20장 4절부터 6장까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남은 것은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몫뿐이니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21장과 22장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계시록의 마지막 환상 시퀀스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환상 부분이자 책 전체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작업할 때 알게 되겠지만, 그것이 클라이막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도록 창조되었고, 창세기 3장에서는 죄로 인해 좌절되고 파멸된 성경 전체의 절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한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창조물을 되찾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자신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이 지금 땅에서 다스리고, 그들이 땅에 살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거하시는 상황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류와 함께 그 궁극적인 완성에 도달하는 구속사적 이야기인 하나님 이야기의 절정을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창조 가운데 이 땅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요한계시록 21장이 확실히 요한계시록의 절정이고 성경 전체의 절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본 심판의 환상, 특히 심판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17장부터 20장까지의 환상과도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과 보상에 대한 이 비전은 확실히 대담한 부조로 두드러집니다. 이제 새 창조의 형태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텍스트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21장과 1절부터 8절까지가 실제로 19장과 20장을 포함하여 전체 부분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곱 마리의 황소를 안고 있는 천사가 요한을 매춘부를 만나러 데려가는 것과 같이 명확한 구조적 특징을 갖는 주요 대조를 말했습니다. 바벨론은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고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이 두 북엔드는 21장 9절부터 시작하여 22장 6절까지 이어지는 신부,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시작하고 그 다음 몇 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19장 전체에서 21장 8절까지가 바벨론의 멸망, 음녀 바벨론, 신부 새 예루살렘의 도래 사이의 일종의 과도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는 일련의 심판 장면이 있는데, 인간과 짐승과 용을 모두 처리하고, 종합 심판에서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2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에 속하지만, 지금은 21장 9절에서 신부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대한 배경과 서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공하는 환경은 새로운 창조, 즉 새로운 질서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21절 1절부터 8절까지의 새 창조에 따라 이제 신부 새 예루살렘은 창녀 바벨론과 대조되며 이제 신부 새 예루살렘이 소개되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결혼식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21장과 9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4장과 5장이 마침내 21장과 22장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4장과 5장은 온 하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 즉 앉으신 이의 장면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늘에서 인정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시험할 수 있는 땅에서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과 5장의 장면이 새 창조의 형태로 이 땅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하늘이 땅에 내려옴에 따라 이제 21장과 22장에서 하늘과 땅이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에 거하시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와 공존한다. 나는 들었다, 혹은 설교 제목을 보았다, 설교 제목을 듣지 않았다, 설교 제목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새 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몇 초 동안 의아해했지만, 생각할수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21장을 우리의 새 집, 주된 목표, 하늘의 운명, 하나님의 백성의 주된 보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시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하나님께서 새 집을 구하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잠시 멈춰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거처는 이제 그의 백성과 함께 새 땅에 있습니다.

즉, 21장과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 이후로 행하지 않으셨던 일을 행하시며,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1, 2절 이후로 행하지 아니한 일, 죄로 인하여 망하고 좌절되고 휘방되었던 일이 이제 다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과 22장은 우리가 새 집을 얻는 것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집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후로 행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 새 땅에서.

그러므로 이제 19장과 20장에서 모든 것이 심판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유업에 들어가서 그들의 유업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21장과 22장의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최종 질서의 묘사, 마지막 때의 현실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모든 맥락에서 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창조에 대한 묘사의 세부적인 부분도 살펴보세요.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과 큰 백보좌 심판 27회입니다.